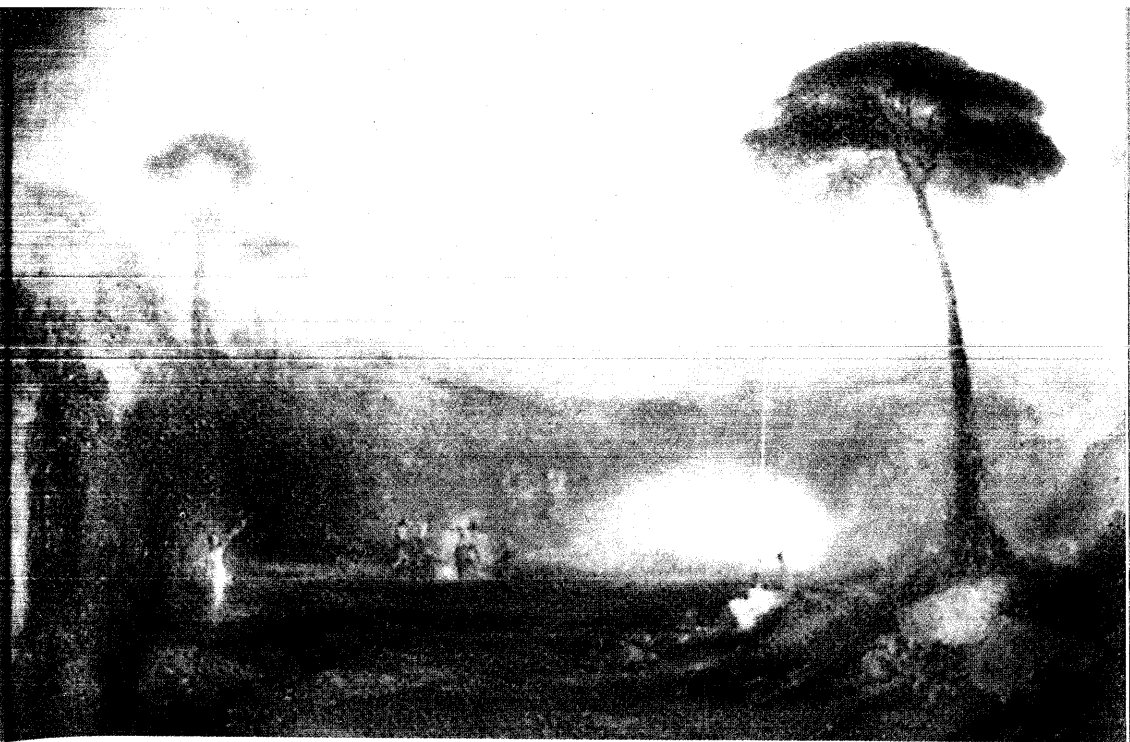


황금가지



〈황금가지〉 터너, 1834년

“그림의 풍경은 옛사람들이 ‘디아나의 거울’이라 부른 네미의 작은 숲에 있는 호수의 꿈 같은 환상인데……. 이 호반에 잠든 이탈리아 특유의 두 마을이나, 호면까지 가파르게 뻗친 테라스식 정원이 있는 궁전도 그 경치의 고요함과 쓸쓸함을 깨뜨리지 못한다. 지금도 디아나는 이 적막한 호반을 헤매고 이 숲속에 출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프레이저, 《황금가지》에서.

네미 숲속의 비밀

그 옛날 이 아름다운 숲은 되풀이되는 비극의 무대였다. 호수의 북안,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로 밑에 성스러운 숲이 있었다. 이 거룩한 숲속엔 무성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주위엔 언제나 깊은 밤중까지도 무시무시한 사람의 그림자가 배회하고 있었다. 그의 손엔 언제나 칼집에서 빼어든 칼이 있었고, 그는 마치 언제 적의 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듯 조심스레 둘레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 미치

광이 같은 사나이는 사제이면서 살인자였다. 그리고 그가 경계하는 것은 조만간 그를 죽이고 대신 사제직을 맡게 될 사나이였다. 후보자는 사제를 죽임으로써만 그를 계승할 수 있었고, 일단 사제가 되면 자기보다 더 강하고 교활한 자에게 살해당할 때까지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황금빛 숲의 고요함에 어울리지 않는 이 끔찍한 살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세계가 아직 젊었던 시절

까마득히 잊혀진 시절, 이젠 무의식만이 기억하는 시절, 은유는 사상이었고 상징은 현실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세계를 우리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또 다르게 느꼈다. 그들에겐 바람에 이는 나뭇잎, 물결치는 보리 이삭마다 영혼이 깃들여 있고, 굴러다니는 돌멩이에도 숨이 붙어 있었다. 수풀과 호수마다 정령이 살았고, 대지는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품에서 모든 사물과 대화를 나눌 줄 알았기에 고달픈 삶 속에서도 우리처럼 고독하진 않았을 게다. 그들이 소망을 이루는 방식은 주술이었다. 들소를 잡고 싶으면 들소 그림에 창을 꽂았고, 비를 내리고 싶으면 연기를 피워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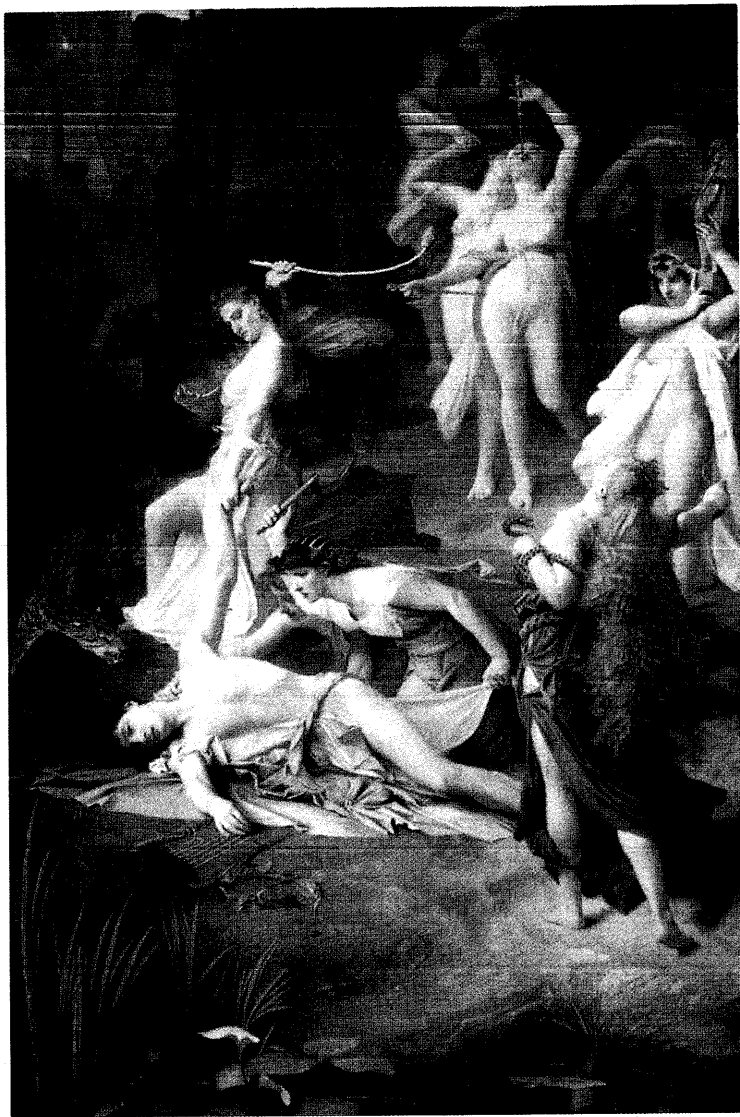
물론 그림이나 연기는 실물을 대신하는 가상 또는 기호일 뿐이다. 우리에게 가상은 현실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번거롭게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가상은 곧 현실이었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사이엔 중력의 법칙만큼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있어, 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그대로 다른 세계로 이

어졌다. 그들은 두 세계 사이에 높다란 장벽을 쌓지 않았고, 두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길 좋아했다.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정신의 자유를 누렸고, 그 분방함을 잡아매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들 신을 살해하다

자연 현상 가운데서 원시인들이 가장 경탄스런 눈으로 바라본 건 아마도 다시 찾아온 봄이었으리라. 차갑게 식었던 태양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고, 하얀 눈으로 덮인 들판에 푸른 물결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를 맞았으리라. 하지만 지나간 겨울내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그들은 마음속 한구석에 어떤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눈보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닐까, 태양이 저대로 영원히 식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제 다신 푸른 들을 볼 수 없는 게 아닐까…….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들은 사계절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자연 현상을 주술로 재현했다. 먼저 자연의 성장력을 상징하는 사람을 뽑는다. 물론 젊고 건강해야 한다. 그는 사제이고 왕이고 수목의 정령이자, 무엇보다도 신이다. 이제 원시인들 특유의 은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이 젊고 건강한 동안, 대지는 겨울의 차가운 힘을 몰아내고 들판에 푸른 물결을 가져온다. 그러나 신이 늙고 병들면, 대지는 봄을 부를 수도, 풍요로운 결실을 보장할 수도 없다. 때문에 신과 동침한 아내가 남편의 몸이 전과 다르다고 보고하는 날



〈오르페우스의 죽음〉 에밀 레비, 18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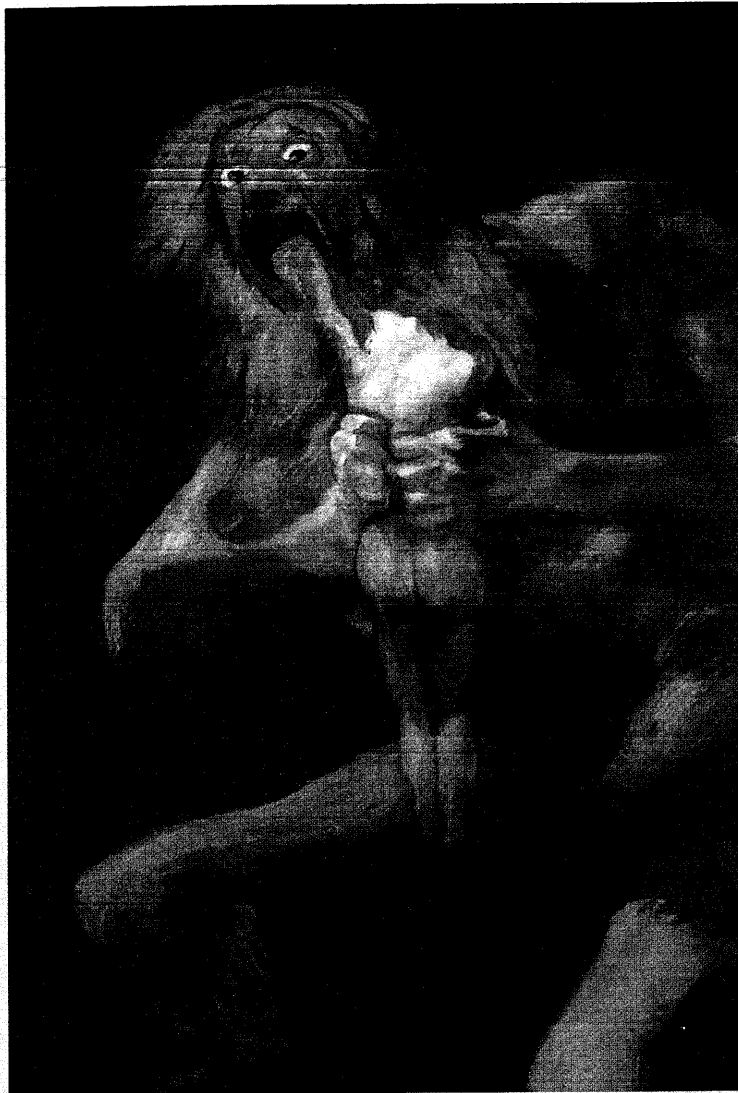
엔, 즉시 그의 목을 베고, 젊고 튼튼한 사람을 새로이 신으로 선출했다. 흉작이나 재앙이 닥쳐도 마찬가지였다. 그 시절엔 이렇게 인간이 신을 죽였다. 처음 신을 죽인 건 니체가 아니다.

비극의 탄생

원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주술일 뿐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 주술을 행하는 동안, 그들은 봄의 도래를 확인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영예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조만간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누가 신이 되려 하겠는가. 때문에 이런 야만적인 관습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다. 적어도 신에게 자기 방어의 권리는 주어야 한다. 만약 신이 젊은 도전자와 싸워 그를 물리친다면, 아직 그에게 신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 셈이 아닌가? 이제 네미 숲속의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 뒤 서서히 사제의 권력이 증대하자, 이제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가령 그의 아들)이 죽어간다. 원시인들의 논리를 이용하면, 목숨을 내놓기 싫은 사제가, 자기 아들이 사실 자기랑 다를 바 없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데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년 살해 이야기는 아마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술에 취해 자기 아들을 찢어 죽였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디오니소스 축제도 갈갈이 찢겨 죽은 디오니소스를 추모하는 행사였다.

왜 그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그토록 흥청대는 '축제'로 기념해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고야, 1700년대 말



〈목신 주상 앞의 바쿠스 주신제〉 푸생, 1630년경
목신은 디오니소스(바쿠스)의 시종이었다.

야 했을까? 거기엔 징그러운 이유가 있다. 신이 살해되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다. 그들은 신의 육신을 먹으면 신의 영험함이 자신에게 옮겨 온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신 또는 그 대리자의 목을 벤 날엔 흥겨운 축제가 벌어졌다. 디오니소스도 그렇게 뜯어 먹혔을 게다. 유럽에서 초봄에 행해지는 '카니발'(글자 그대로 하면 인육을 먹는다는 뜻이다)의 원형이 바로 이거다. 요한 호이징

가(Johan Huizinga, 1872~1945)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관습이 중세까지, 그것도 기독교 신앙 아래 버젓이 행해졌다 한다. 성자의 유골이 영험하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은 가끔 성자를 죽여, 그 시체를 끓는 물에 푹 고아 뼈와 살을 분리한 다음, 그 뼈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한다.

그 뒤로는 인간 대신에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 죽어갔다. 여기서 신이 양으로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동물을 숲이나 들판의 생산력을 상징하는 정령으로 여기는 관습은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때 신과 동물이 혼동되곤 한다. 가령 포도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때론 양과 동일시된다. 이제 사람들은 인육 대신에 양고기를 뜯으며 즐거워한다. 그리스의 비극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불렀던 노래 <디튀람보스>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또 비극이란 말의 어원, '트라고에디아(tragoedia)'는 원래 양을 뜻하는 말이었다 한다. 비극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탄생했다. 디오니소스 살해의 음침한 기억을 간직한 채로 말이다.

신상의 탄생

<집시의 시간>이란 영화를 본 사람은 이 인상적인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부활절에 집시들이 벌이는 물의 축제 장면이다.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뗏목이 떠 있고, 그 위엔 나무와 천으로 열기설기 만든 커다란 인형이 놓여 있다. 뗏목 주위엔 집시들이 벌거벗은 몸을 물에 담근 채 둘러서 있고, 손에 든 횃불이 물안개 속에

아련히 빛난다. 잠시 뒤 이 인형은 불태워지고, 이글이글 타오르다 서서히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집시들 사이에서 아직도 행해지는 이 축제엔 신석기 시대의 관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유럽의 여러 곳엔 추수가 끝난 뒤 가장 마지막으로 벤 벼단으로 인형을 만들어 텅 빈 들판의 한구석에 세워두는 관습이 있다. 이 인형은 이듬해 봄 떠들썩한 축제 때 목이 베어진다. 목을 벤 뒤 사람들은 이 인형에 불을 질러 강물 속에 던져버리거나, 그 재를 받아 들판에 뿌리곤 했다. 그럼 다음해 농사는 어김없이 풍작이었다. 이 인형은 수목의 정령이었다. 아득한 옛날엔 인형 대신에 산 사람의 목을 베었으리라. 파르테논 신전에 금박과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대리석 신상들도 원래는 겨우내 들판 한구석에 외로이 서 있다 봄에 가차없이 목이 잘렸던 그 초라한 밀짚 허수아비에 서 비롯된 게 아닐까?

■ J. 프레이저,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이경덕 옮김), 까치, 2000.